

내용 요약

『튀르크 시학: 발전 단계: 8세기-20세기 는 그 시기의 터키 시의 형태적 변화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한 터키 시문학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연속성과 수용성을 보여준다. 저자는 이를 위해 우선 발전과정을 4단계로, 즉 고대 투르크 시 대, 초기 고전시대, 터키어로 쓰인 고전시의 전성기, 현대로 구분하여 장기간에 걸 쳐서 시의 구성 체계가 어떤 변화 과정을 겪었는지, 아루즈 운율을 적용한 투르크 작시 기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. 또한 고대 투르크 두운체계에서 중 세 고전시의 규칙적인 리듬체계로의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, 고전 시 의 운율 구조가 현대 시에 어떻게 수용되어 나타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. 특히 저자는 투르크 민족이 역사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, 서구 문물의 급속한 침투 로 인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미적 관념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과 거의 전통과의 단절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대표적 문화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 계하여 시문학을 발전시켰는지를 보여주고 있다. 제1장에서는 고대 투르크어 시 (8~10세기)의 우율과 음우 구성, 작시 기법에 관해 살펴보았다. 제2장에서는 유스 프 발라사긴의 시 『쿠타드구 빌릭』, 마흐무트 카스가리(Mahmud ibn Hussayn ibn Muhammed al-Kashgari)의 작품 『DīDīwān Lughāt al-Turk』을 연구대상으로 11세 기 시의 특징, 아랍-페르시아 시가 투르크어 시의 형성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았다. 제3장에는 15~16세기 투르크어 시의 특징을 살펴보았으며, 또한 고전문학의 장르 체계도 다루고 있다. 제4장에는 여러 투크르 민족들(우즈벡인, 카자흐인, 키르기스 인, 타타르인, 아제르바이잔인, 터키인)의 현대 시에 나타난 운율적인 문체들을 다 루고 있다.